

 국토교통부		<h1>보도자료</h1>		
		배포일시	2020. 8. 20.(목) 총 3매(본문 3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황윤언, 사무관 양정선, 전문위원 김수경 • ☎ (044) 201-4151, 4910	
	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	담당자	• 과장 김인규, 사무관 강재훈, 주무관 우선희 • ☎ (042) 481-4961, 4962	
보도일시		2020년 8월 2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20.(목) 14:30 이후 보도 가능		

국토부-문화재청, 무형문화 보전진흥 특화 도시재생에 맞손 - 20일 업무협약서 전주시·밀양시 무형문화 특화 도시재생 추진 협력기로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문화재청(청장 정재숙)은 8월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.
- 이번 업무협약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과 예술인 행복주택을 건립하고 지역이 보유한 전통문화와 연계한 전시·공연·작업장 등 문화·편의시설을 확대하여 무형문화재를 보전하고 진흥하는 특화도시 조성 및 도시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.
 -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양 부처의 사업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각 사업지의 연계 선정·지원, ②전주와 밀양에 무형문화재 특화 도시재생을 위한 연계사업 추진, ③연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및 무형문화재 관계자 협의체 운영 등이다.
- 주요 사업지인 전주시는 가야금 산조 및 병창(강정열 보유자), 선자장(김동식 보유자) 등 국가무형문화재 2종목과, 시도무형문화재 30종목을

보유하고, 전수자 등 무형문화 관계자 500여 명이 사업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, 무형문화재 특화 도시재생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이에 국립무형유산원 옆 부지에 예술인 주택(96호),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및 전시·공연·판매 공간 등 생활 SOC가 복합된 건축물을 함께 조성하여 무형문화 보유자·전수자를 비롯한 문화예술인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,

○ 인근 전주한옥마을, 서학예술마을과 연계한 전통문화유산 활성화 기반 마련을 통해 일반시민과 관광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지역 거점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□ 밀양시는 밀양아리랑, 밀양감내계줄당기기 등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과 국가무형문화재 밀양백중놀이, 시도무형문화재 4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며, 전수자 등 무형문화관계자 2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.

○ 한편, 삼문동 일원은 밀양시청, 법원, 경찰청 등 공공기능이 밀집된 중심지역이었으나, 공공시설 이전에 따라 생기를 잃어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활력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.

○ 이에 밀양시 삼문동 일원에 예술인 행복주택(100호), 주민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한 아리랑 어울림센터,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과 지역 무형문화 체험·교류 기능을 갖춘 아리랑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, 창업지원 및 지역주민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숲속 그린캠퍼스 등을 주요 거점으로 조성하여 주변 도심을 함께 재생해 나갈 예정이다.

□ 앞으로 전주시와 밀양시의 무형문화재 특화 도시재생사업은 오는 9월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.

- 국토부-문화재청 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①안정된 환경에서 무형 문화재 등 전통문화의 보전 및 계승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 ②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으로 국민들의 전통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, ③쇠퇴한 구 도심의 활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“이번 협약은 무형문화재 관계자들에 대한 단순한 주거지원 차원을 넘어, 지역의 전통문화 유산과 함께 살아 숨쉬는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”며,
 - “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도시재생이 이뤄 수 있도록 다양한 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-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“이번 협약을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전승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, 무형유산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,
 - “무형문화재가 주민들과 상생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문화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양정선 사무관(☎ 044-201-4151),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강재훈 사무관(☎ 042-481-496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